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가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김수올^{1,*} · 김소명^{2,†}

¹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²가톨릭상지대학교 간호학과

(2022년 4월 7일 접수: 2022년 4월 28일 수정: 2022년 4월 29일 채택)

The Effects of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of General College Students on Gender Sensitivity

Kim Soo-ol^{1,*} · Kim So-myung^{2,†}

¹Gwangju Women's University

²Catholic Sangji University

(Received April 7, 2022; Revised April 28, 2022; Accepted April 29, 2022)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와 성인지 감수성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139명의 일반 대학생으로 자가 보고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t-test, ANOVA 및 Schffe test로 분석하였다. 일반 대학생의 성지식 평균은 38점 만점에 22.73점이었고, 성태도는 5점 만점에 2.92점이었다. 성인지 감수성은 평균 5점 만점에 2.03점이었다. 연구 결과, 성인지 감수성은 성태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201$, $p=.018$), 일반 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태도($\beta=.196$, $p=.021$)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4.0%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반 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올바른 성태도를 확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대학생, 지식, 태도, 성, 감수성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attitude, sexual knowledge and gender sensitivity of general college students, and to analyze the effect on gender sensitivity. Participants included 139 general college student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Schffe test for multiple comparisons. The average score of the general college students sexual knowledge was 22.73 out of 38 points, and their sexual attitudes scored 2.92 out of 5 points. The average score of gender sensitivity was 2.03 out of 5 points. As a result of the study, gender sensitiv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xual attitude ($r=.201$, $p=.018$), and the factors

[†]Corresponding author
(E-mail: smkim@csj.ac.kr)

affecting gender sensitivity of general college students were sexual attitude ($\beta=.196$, $p=.021$),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factors was 34.0%.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ment of a program that can establish a correct sexual attitude in order to increase the gender sensitivity of general college students.

Keywords : Student, Knowledge, Attitude, Gender, Sensitivit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사회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로 인하여 성과 관련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1]. 정보화 시대가 가져다준 역기능 중 하나로 누구나 접근이 용이한 매체를 통해 올바르게 바르지 못한 성지식을 갖게 되며, 이로 인해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성인지 감수성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에 대해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뜻하는 것으로 성과 관련된 불평등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실천하는 능력을 말한다[4]. 성인지 감수성은 성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피해자의 입장으로 사건을 마주하여 이해하는 것으로 [4], 성인지 감수성은 이 시대 대학생들과 사회인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덕목이 되었다[5]. 성인지 감수성의 저하는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성인지 감수성을 증가시켜 대학생의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하도록 해야 한다[6].

대학생은 독립적인 생활과 자유로운 환경에서 이성 교제와 성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고[7,8], 자유로운 이성 교제를 통해서 본인의 정체성 확립을 확고히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1]. 그러나, 성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심리적으로 많은 혼란감을 느끼게 되고[9],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지식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므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이나 임신중절, 성병[10], 인터넷을 활용한 음란물로 인한 피해 등 많은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9]. 따라서, 성적 갈등을 적절하게 수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성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성지식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1].

성지식은 성인으로서 성에 관해 알아야 할 기

본적인 지식으로[12], 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성과 관련된 갈등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13]. 그러나 대학생들은 성에 관한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12] 충분한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14], 올바른 성지식을 가지도록 교육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공식적인 성교육보다는 대중매체와 친구를 통하여 성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행동하여 성과 관련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15]. 신뢰하지 못한 경로를 통해 습득하여 형성된 성지식은 대학생들의 성태도와 성인지 감수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1].

성태도는 성에 대해 지각하고 성적 행위에 대한 개인의 견해로[16], 성태도가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으므로 대학생 때 형성된 성태도는 개인과 사회의 성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17]. 또한, 대학생은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로[13], 성에 관한 가치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성적 충동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올바른 선택에 따른 성행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9], 성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13].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는 서로 관련성이 있고[9,18], 성지식에 의해 성태도가 결정되며[18], 성지식과 성태도는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19]. 따라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대학생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와 성인지 감수성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올바른 성문화 확립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행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와 성인지 감수성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성인지 감수성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인지 감수성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성인지 감수성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성인지 감수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G시, A시에 소재한 대학교 일반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상자 모집 방법은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3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를 4개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31명으로 탈락률을 고려한 경우 필요한 표본 수는 160명이었다. 설문지는 구글폼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2021년 11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대학생들 SNS 단톡에 온라인 설문 URL을 배포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들이 URL을 클릭하여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총 164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고, 응답이 불충분한 25부가 제외되어 총 139명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성지식

본 연구에서 성지식은 Ho [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생식기 관련 8문항, 임신과 출산 관련 9문항, 성건강 관련 12문항, 성행위관련 9문항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답은 1점, 오답이나 모르겠다로 답하면 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7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4로 나타났다.

2.3.2. 성태도

본 연구에서 성태도는 Ho [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성에 대한 생각 11문항, 혼전순결 허용성 7문항, 결혼관 7문항, 성 허용성 6문항, 동성애 허용성 5문항, 낙태 허용성 6문항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인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1~.9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65~.91로 나타났다.

2.3.3. 성인지 감수성

본 연구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Lee [20]가 개발한 젠더 감수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성정체성에 대한 개방성 12문항, 자기성찰 9문항, 비폭력 8문항, 감정이입 2문항 총 31문항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20]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4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2로 나타났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G시, A시에 소재한 대학교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비밀이 보장됨과 설문 도중 참여를 중단하여도 불이익 없음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URL에 접속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이 종료된 후 소정의 답례를 제공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용된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지식, 성태도, 성인지 감수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

도, 성인지 감수성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와 성인지 감수성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다중공선성 진단 후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인지 감수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22명(15.8%), 여학생이 117명(84.2%)으로 여학생이 많았고, 학년은 1학년이 40명(28.8%), 2학년이 57명(41.0%), 3학년이 20명(14.4%), 4학년이 22명(15.8%)으로 1학년과 2학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없는 대상자가 97명(69.8%)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가 26명(18.7%), 천주교가 9명(6.5%), 불교가 7명(5.0%) 순이었고, 이성 교제 경험은 '과거에 경험이 있으나 지금은 없다'가 59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현재 교제 중'인 대상자가 49명(35.3%), '경험이 없다'가 31명(22.3%) 순으로 나타났다. 성 교육 유무는 '있다'가 120명(86.3%), '없다'는 19명(13.7%)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은 성교육 경험($t=9.335$,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성태도는 종교($F=3.837$, $p=.011$)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기독교인 대상자보다 성태도가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성인지 감수성 정도

대상자의 성지식은 38점 만점에 22.73 ± 4.24 점, 성태도는 5점 만점에 2.92 ± 0.25 점, 성인지 감수성은 5점 만점에 2.03 ± 0.20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성인지 감수성 간의 관계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인지 감수성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인지 감수성 간의 상관관계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성태도($r=.201$, $p=.018$)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지 감수성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높아 성태도가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982로 자기상관이 없고, 공차한계가 0.1이상, 분산팽창지수도 10보다 크지 않아 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모형은 유의하였으며($F=3.460$, $p<.001$), 설명력은 34.0%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태도($\beta=.196$, $p=.021$)로 나타났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지식과 성태도 및 성인지 감수성을 파악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성지식은 38점 만점에 평균 22.73점으로 나타났다. Yang등[21]의 연구결과 22.2점보다는 높고 Cho와 Lee [7]의 연구결과 27.0점 보다 낮은 것은 Yang 등[21]의 연구처럼 대상자가 1, 2학년이 많고 상대적으로 Cho와 Lee [7]의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생 3, 4학년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간호대학생들은 전공교육과 임상 실습 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성 교육으로 성 관련 지식을 배우고[21], Cho와 Lee [7]의 연구결과 성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학년이 높을수록 성지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부터 성지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비교과 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1. Differences i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Gender Sensitiv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N=13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Gender Sensitivity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2215.8	22.96±3.85	1.492 (.138)	2.93±0.24	1.128 (.261)	2.02±0.20	-1.281 (.202)
	Female	11784.2	21.50±5.87		2.87±0.27		2.08±0.21	
Grade	1	4028.8	22.47±4.26		2.89±0.24		2.04±0.21	
	2	5741.0	22.96±4.57	.484 (.694)	2.98±0.24	1.889 (.134)	2.02±0.22	.246 (.864)
	3	2014.4	23.40±3.42		2.91±0.28		2.01±0.21	
	4	2215.8	22.00±4.24		2.85±0.21		2.06±0.26	
Religion	Christian ^a	2618.7	21.42±5.46		3.06±0.32		2.05±0.18	
	Catholic ^b	96.5	23.66±3.84	1.860 (.139)	2.83±0.34	3.837 (.011)	2.01±0.28	.105 (.957)
	Buddhism ^c	75.0	25.28±3.40		2.98±0.13	a>d	2.05±0.20	
	No religion ^d	9769.8	22.81±3.89		2.89±0.21		2.03±0.21	
Dating experience	Present	4935.3	23.34±3.18		2.89±0.27		1.98±0.23	
	Not now but past	5942.4	22.74±4.47	1.365 (.259)	2.96±0.24	1.149 (.320)	2.05±0.18	2.457 (.089)
	No experience	3122.3	21.74±5.12		2.91±0.21		2.08±0.21	
Sexual education	Yes	12086.3	23.78±2.93	9.335 (.001)	2.93±0.24	.404 (.687)	2.02±0.20	-1.457 (.147)
	No	1913.7	16.10±5.24		2.90±0.31		2.10±0.48	

Table 2. Level of the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Gender Sensitivity

(N=139)

Variables	M±SD	Min	Max
Knowledge	22.73±4.24	5	30
Attitude	2.92±0.25	2.17	3.55
Practice	2.03±0.20	1.52	2.71

Table 3. Correlation among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Gender Sensitivity

(N=139)

Variable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Gender Sensitivity
	r (p)	r (p)	r (p)
Sexual Knowledge	1		
Sexual Attitude	-.048(.575)	1	
Gender Sensitivity	-.100(.242)	.201(.018)	1

Table 4.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Gender Sensitivit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N=139)

Variables	B	SE	β	t	p	Adj R ²	F(p)
Constant	1.663	.228		7.279	.000	.340	3.460
Sexual Attitude	.162	.069	.196	2.344	.021		(<.001)

연구 결과 대학생들의 성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2점으로 나타났다. Jung과 Lee [22]의 연구 3.04점보다 낮고 Yang 등[21]의 연구 결과 2.96점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성태도는 성에 대한 지각과, 이념과 성향 등으로[23], 이미 형성된 성에 대한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 시기에 형성된 성태도는 성문화와 개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올바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17]. 따라서 성태도가 고착되기 전에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책임 있는 성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성인지 감수성은 5점 만점에 평균 2.03점으로 Yang 등[21]의 연구 결과 2.96점, Jung과 Lee [22]의 연구 결과 3.28점보다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한 결과라 생각한다. 간호대학생

은 전공교육과 임상 실습 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성교육으로 일정 부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정보를 습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보다 성인지 감수성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Lee와 Kang [26]의 연구에서 대학생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된 신념이 높을수록 성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의 향상으로 성에 대해 올바른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27],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및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은 성교육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성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보다 성지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ung과 Lee [22], Cho와 Lee [7]의 연구 결과 성교육을 받은 경험에 따른 성지식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좀 더 면밀히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는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기독교인 대상자보다 성태도가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22,23]에서는 종교에 따른 성태도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종교가 없는 대상자보다 기독교인 대상자가 성태도가 더 낮게 나타난 결과는 성에 대해 개방적인 사회적 분위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성을 죄의식과 깊이 연관시키는 기독교 특성으로 인해 더 보수적인 성태도를 가지는 것[24]으로 생각한다. 성태도는 성인이 되기 전의 습득한 성지식과 경험으로 결정되며[9], 한번 형성된 성태도는 성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19,23], 올바른 성지식을 통해 성태도가 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성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8,25]. 또한,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반복측정해 볼 필요가 있으며, 실제적인 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성지식, 성태도 및 성인지 감수성과의 상관관계는 성지식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과 상관이 없었으며, 성인지 감수성은 대학생의 성태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지식이 성인지 감수성과 상관이 없었던 Cho와 Lee [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Yang 등[21]의 연구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성태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태도가 높을수록, 즉 성태도가 개방적일 수록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을 계획할 때 먼저 성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중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태도로 나타났고, 성지식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Yang 등[2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Cho와 Lee [7]의 연구에서도 성지식은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결과는 성태도를 향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바른 성태도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21]를 지지한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정규적인 커리큘럼 교육과정에서 성교육을 포함시켜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 [18]를 지지하며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의 향상을 위해서 올바른 성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인지 감수성의 관계를 확인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 근거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성태도와 성인지 감수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회귀분석 결과 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에 성태도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34.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두 개 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대학생의 성태도를 높일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S. M. Ho,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09).
2. J. W. Jeong, E. N. Lee, "Gender Training to Enhance University Students Gender Sensitivity -Focusing on Womens Studies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2, No. 5, pp. 11-35, (2018).
3. N. H. Kim, Y. J. Park, H. S. Jung,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that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Vol. 7, No. 2, pp. 17–42, (2015).
4. J. Y. Lee, “A Study on Developing Gender Sensitivity Measur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1).
 5. H. J. Lee, S. Y. Oh, E. S. Kim, “A study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wareness of gender sensitivity”,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3, No. 2, pp. 169–194, (2018).
<https://doi.org/10.20437/KOAECE23-2-08>
 6. S. G. Kim, “Effects of Gender Sensitivity, Sexual Autonomy, Sexual Attitude and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on Sexual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8 pp. 268–278, (2021).
<https://doi.org/10.5762/KAIS.2021.22.8.268>
 7. J. H. Kim, K. S. Kim,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on their sexu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3, No. 1, pp. 123–138, (2008).
 8. S. M. Koo, H. J. Kim,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knowledge or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2, pp. 1–11, (2017).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1>
 9. N. H. Kim, Y. J. Park, H. S. Jung,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that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Vol. 7, No. 2, pp. 17–42, (2015).
 10. L. B. Finer, S. K. Henshaw, “Disparities in rates of unintended pregnancy in the United States, 1994 and 2001”,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Vol. 38, No. 2, pp.90–96, (2006).
<https://doi.org/10.1363/3809006>
 11. Y. M. Cho, J. Y. Le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Knowledge, Contraceptive Attitude and Gender Suscepti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9, pp. 221–228, (2020).
<https://doi.org/10.31366/jer.2020.34.2.6>
 12. M. A. Shin, J. H. Choi, Unmarried college students’ knowledge of sex and cognition of prenatal education, *Korean J Hum Ecol*, Vol. 19, No. 4, pp.613–624, (2010).
<https://doi.org/10.5934/KJHE.2010.19.4.613>
 13. S. M. Koo, H. J. Kim,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knowledge or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2, pp. 1–11, (2017).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1>
 14. K. E. Lee, “Study on the needs on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sex and sex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 No. 6, pp. 179–199, (2022).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6.179>
 15. Y. S. Kang, H. N. Hwang, “A Study o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3, No. 1, pp. 9–17, (2017).
<https://doi.org/10.14370/jewnr.2017.23.1.9>
 16. Y. S. Kang, H. N. Hwang, “A Study o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3, No. 1, pp. 9–17, (2017).
<https://doi.org/10.14370/jewnr.2017.23.1.9>
 17. E. M. Kim, S. J. Yoo, M. R. Song, “Correlation between History of Exposure to Obscene-Material, Sexual Attitudes and Intercourse Experi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0, pp. 18–26, (2013).
<https://doi.org/10.7739/jkafn.2013.20.1.18>
18. E. J. Seo, N. H. Cha, “Analysis of Domestic Studies in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1985–2020”,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1, pp.162–169, (2021).
<https://doi.org/10.17703/JCCT.2021.7.1.162>
 19. S. J. Kim, S. T. Moon, H. S. Kang, “Factors influencing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0, No. 4, pp. 434–443, (2011).
<https://doi.org/10.12934/jkpmhn.2011.20.4.434>
 20. K. J. Kim, “Study on the influence of old women's understanding of sex on life satisfact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llym University, (2002).
 21. Y. M. Yang, M. O. Cho, K. H. Baek, “The Effects of Sexual Attitude and Sexual Knowledge of Nursing Students on Gender Sensitivit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1, No. 6, pp. 15–63, (2021).
<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06.055>
 22. Y. K. Jung, J. H.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Knowledge and Contraception Knowledge and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in an Area”,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 7, No. 2, pp. 1275–1288, (2019).
<https://doi.org/10.15205/kschs.2019.12.31.1275>
 23. M. O. Kim, “Factors affecting the sexual behavio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Vol. 14, No. 8, pp. 3876–3886, (2013).
 24. J. D. Shea, “Religion and Sexual Adjustment. Religion and Mental Health. In J.F. Schumaker”, pp. 70–8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25. R. S. Mckelvey, J. S. Webb, L. V. Baldassar, S. M. Robinson, G. Riley, “Sex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among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Aust N Z J Psychiatry, Vol. 33, No. 2, pp. 260–266, (1999).
<https://doi.org/10.1046/j.1440-1614.1999.00549.x>
 26. E. S. Lee, H. S. Kang,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Gender Role Stereotype, Sexual Assertiveness, Sexual Assault Recognition,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and Sexual Violence Experience in Dating”,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0, No. 1, pp. 1226–4938, (2014).
<https://doi.org/10.14370/jewnr.2014.20.1.48>
 27. Y. M. Choi, H. Y. Jeong, “An Analysis of Gender Sensitivity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a Survey Targeting K University Students)”, KNU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4, No. 2, pp. 65–89, (2020).
<https://doi.org/10.31366/jer.2020.34.2.6>